

# 광주 학생들 '글로벌 마인드' 쑥쑥

## 올 30개교...초·중·고 국제교류 활발 中·日 홈스테이 통해 현지문화체험

광주지역 초·중·고교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 학교들과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주 문흥중 교사 8명과 학생 33명은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요녕성 심양 조선족 제6중학교를 방문해 축구 경기를 갖는 한편 심양의 신라유적지 등 중국 내 우리 민족 발자취 찾기 등의 교류 행사를 실시한다. 또 자매결연 학생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중국의 가족문화를 체험한다.

이에 앞서 광주동림초교 '중국문화체험단' 35명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자매결연 학교인 중국 광둥성 조천실험소학교를 방문, 중국의 자연과 문화유적을 둘러봤다.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게 태권도·태권무 등 우리 문화를 선보였고, 중국 학생들은 우수·관현악기 연주 등 중국의 고유 문화를 소개했다.

오는 11월에는 중국 조천실험소학교 '한국문화체험단'이 광주를 방문,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광주 금당초교 학생 20명도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 학교인 중국 천진시 평산도소학교를 방문, 중국의 문화를 익혔다.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중국의 가정생활과 문화를 체험했다. 학교 측은 '교류체험보고회'를 실시해 교류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의 문화·교육·역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교류·체험실시 학교 수가 지난 2003년 12개교에 불과했으나 2004년 15개교, 2005년 23개교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3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일남 장학사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각 학교별로 외국의 다른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교류체험 학습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며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풍습 익히기·교육기관 방문·어학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동림초교 '중국문화체험단' 학생들이 자매결연 학교인 중국 광둥성 조천실험소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기언 동신대 신임총장 인터뷰

# “알짜 학과 철저히 특성화 맞춤형 실무인재 내놓겠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지방 사립대학의 총장을 맡은 소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교육행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대학의 수가 너무 많아 상당수 대학이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여기고 그동안 동신대가 이룩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 특히 전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글로벌 시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에 힘쓰겠다.

-제2의 도약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대학이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이제는 다른 대학을 모방하는 '외형적 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다.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좋은 교육내용, 활발한 연구, 지역과 국가 사회에 필요한 협동사업 등을 통해 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지방 사립대학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행정 경험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대학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 등 3개의 다른 조직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교육부에서 주로 근무했지만 대학에서의 행정경험도 있기 때문



형과 중형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이다. 이 사업은 단지 지방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특성화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지역의 전략육성분야와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연계해 동신대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선도해나갈 것이다.

-지방대학생들의 취업이 힘들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업 및 재정 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이들의 설 자리가 없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취업률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지만 우선은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교육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지식인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지는 않겠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동시에 전인교육을 병행해 품성을 갖춘 '동신대인'을 양성하겠다.

## “외형 키우기는 한계 교육차관보 경험 살려 지역과 함께 성장할 터”

에 대학의 생리도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교수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총장으로서 무엇보다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말하기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교육 행정경험을 구체적으로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인가?  
▲동신대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 대

에 대학의 생리도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교수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총장으로서 무엇보다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말하기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교육 행정경험을 구체적으로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인가?  
▲동신대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 대

## 광주과기원 학생벤처기업 '모티브' 반도체 두께·색도 동시측정 장비 개발

세계 최초... 판매 돌입

광주과기원 학생벤처기업이 '성공신화'를 일구고 있다.

광주과기원은 20일 학생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반도체 측정장비 개발업체인 (주)모티브(대표 오재석)가 최근 세계 최초로 다층박막(multi layer thin film)의 두께와 색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 'FilmExp 시리즈(사진)'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제품은 다층박막의 두께와 색도를 각기 따로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길어져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측정장비인 'FilmExp 시리즈'는 두께와 색도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로써 측정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반도체 생산량 증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제품은 경쟁제품에 비해 크기가 3분의1정도인데다 가격은 40% 수준이어서 반도체 장비업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는 국내 연구소 및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해 올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매년 2~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서울 유명강사 강의 광주서 듣는다

주말 초빙 특강반 운영

광주지역 일부 고3 수험생들이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 유명 학원에서 강의를 받는 새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입시학원이 서울의 유명강사들을 초빙해 주말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일등학원은 서울 대성학원에서 활동중인 수능 스타강사 6명을 초빙, 고3 수험생을 위한 주말영재 특강반을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운영하고 있다.

초청강사는 장원석(2003년 수능 언어영역 출제위원)·김성철(6, 7차 교육과정 영어 검인정교과서 저자·2000수능 출제 검토위원)·정찬홍(EBS언어능력 출제위원)·서의동(EBS수능특강 강사)·박기현(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고창영(7차 교육과정 영어 검인정교과서 저자)씨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생활안내		신고	
<b>교통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법률상담소: 분당(제1)회성회성상담소 671-4050</li> <li>●광주 YWCA: 527-0011</li> <li>●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li> <li>●국제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li> <li>●영유권민상담: 광주전남평무청 1588-9090</li> <li>●소비자 상담: 광주 YWCA 232-6133</li> <li>●광주 YWCA: 524-5400</li> <li>●주부교실: 232-0643-4</li> <li>●주거복지: 239-18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국번없이 112</li> <li>●전남경찰청: 226-0112</li> <li>●광주지검: 233-2828</li> <li>●사이버센터: 021118</li> <li>●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li> <li>●여자행사기동대: 363-0155</li> <li>●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li> <li>●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li> <li>●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li> <li>●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li> </ul>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광주 입시설명회

내달 5일 DJ컨벤션센터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하 ICU)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광주 감대중권 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ICU는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99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SKT 등 IT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 중심의 IT특성화 대학.

국내 최초로 여름학기를 정규학기 과목의 영어강의, 공학(전자, 통신, 전산)과 IT경영학 교차수강제, 삼성전자·IBM 등 국내외의 우수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졸업할 수 있는 인턴십제 실시 등을 통해 국내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MIT를 비롯해 카네기멜론대, 프랑스 INT, 독일 뮌헨공대, 아일랜드 더블린공대(DIT), 인도 IIT 등 전 세계 40개국 80여개 대학과 복수 및 공동학위, 교환학생 등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4년간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부생들은 대학을 마치면 전원 대학원에 진학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apharm.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키블러 인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받은 키블러 인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 **신도통 쿨 점안액**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 **타이플 점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받은 타이플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고객센터 문의: 080-022-2290 (주식회사) 02-390-0000 (고객센터)

광고심의필 : 878-0100

국제약품이 개발하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은 사람과 소원처럼 같은 꿈을 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